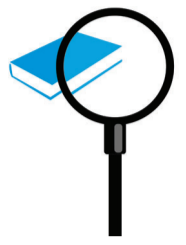


일본 도자기 속 숨은 역사와 조선 사기장의 눈물

〈沙器匠〉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일본 도자기 여행

조용준 지음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도자기를 구경하고 도자기를 사는 수많은 인파 속에 묻혀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내 시선을 유독 잡아끄는 ‘물건’ 하나가 있었다. 이전에는 도자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필자였다. 더구나 도자기를 사고 싶다는 마음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접시나 주발, 조그만 항아리 혹은 꽃병도 아니고 이렇게나 커다란 꽃꽂이용 수반(水盤)에 마음이 확하고 동해버린 것이다.”

일본 왕실에서 사용된 아리타 자기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 조용준 작가의 말이다. 그는 1996년 처음 아리타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단단히 ‘찔’이 쫓히는 경험을 한다. 일생일대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그는 그렇게 생애 최초의 도자기(수반)를 하나 샀다. “어떤 힘든 노동을 거쳐 그놈을 서을 집까지 끌고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이후 수반은 “가족과 평화로운 공존을 하고 있다”고 한다.

조용준과 도자기와의 인연은 그렇게 27년 전 시작됐다. 놀라운 것은 그의 수집가적인 기질 때문에 당



시 1996년 아리타 도자기 축제 때 샀던 입장권도 갖고 있다. ‘세계 불꽃의 박람회’라는 제목이 붙었던 당시 도자기 박람회 티켓 가격이 2800엔이라는 사실도 기억한다.

일본 왕실에서 사용한 아리타 자기를 국내 최초 공개한 조용준 작가가 ‘일본 도자기 여행’을 펴냈다. ‘규슈의 8대 조선 가마’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아리타 자기의 아름다움을 생생히 담고 있다. 책은 개정 증보판으로 도자기에 대해 보다 깊고 치밀하게 다루고 있다.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인 저자는 지금까지 ‘유럽 도자기 여행’ 동유럽, 북유럽, 서유럽 편 3권과 ‘일본 도자기 여행: 규슈의 7대 조선 가마’, ‘일본 도자기 여행: 교토의 향기’, ‘일본 도자기 여행: 에도 산책’ 3권 등 모두 6권의 유럽과 일본 도자문화사를 정리했다. 이번 책은 일본 도자의 태동과 역사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생동감있게 기술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저자는 메이지유신의 배경에는 조선 사기장에게서 탄생한 일본 도자기가 있었다고 본다.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사토모토히데요시의 열등감과 조선 사기장 이삼평의 백자광 발견이 그것. 도요토미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감추기 위해 차와 찻잔 같은 다도를 적절히 활용했다. 특히 그는 조선 찻사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 임진왜란에 참전한 다이묘(중세시대 일본 영주)들이 이를 눈치채고 수많은 조선의 사기장들을 납치해갔다. 물론 이삼평도 그 중의 한 명이었다.

통해 외부에 유통됐고 메이지유신 이후에도 아리타역을 통해 팔려 나갔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하사미는 자신의 이름을 붙일 기회를 갖지 못해 이마리야키 또는 아리타야키로 불렸다. 그러나 하사미에서 처음 가마에 불을 지핀 것은 1598년 조선 사기장 이우경(李祐慶)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책에서는 이렇게 일본 도자기에 얽힌 우리나라의 역사적 비극이 다양한 사료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도자기는 단순한 식기나 예술품 그 이상을 넘는다는 의미다.

일본 도자기의 시작을 언급할 때 거론되는 인물은 두 명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열등감과 조선 사기장 이삼평의 백자광 발견이 그것. 도요토미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감추기 위해 차와 찻잔 같은 다도를 적절히 활용했다. 특히 그는 조선 찻사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 임진왜란에 참전한 다이묘(중세시대 일본 영주)들이 이를 눈치채고 수많은 조선의 사기장들을 납치해갔다. 물론 이삼평도 그 중의 한 명이었다.



국화무늬 란카쿠데 접시와 잔



고이마리야키에 꽃병 (규슈도자문화관)

조선 사기장들은 일본에서 대를 이어가며 그들만의 독특한 도자기를 만들었다. 조선의 것과 유사하면서도 그것과 구별되는 독자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작품을 추구했다.

단정하고 기품있는 형상과 유약이 조화를 이루는 다카토리야키, 양각과 투각 기법이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는 미가와치야키, 청화백자와 국화 무늬 세공의 장식에서 두각을 드러낸 나카사토야키 등은 독자적인 경지를 이루었다는 평가다.

한편 책에는 2022년 규슈박물관이 처음 일본 왕실에서 사용하던 그릇들도 소개돼 있다. 메이지 왕

의 생일 축하연에 사용했던 그릇, 고카쿠 일왕의 식기 등도 볼 수 있다. <도도·2만2000원>

/skypark@kwangju.co.kr

SF 보다-얼음

곽재석 외 지음

오늘날 SF 영역은 한계가 어디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그만큼 독자들의 요구와 글을 쓰는 작가들의 상상력이 맞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실 SF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읽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글을 쓰는 편에서는 미지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일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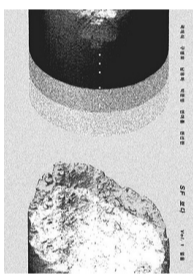
문학과지성사의 새 기획 ‘SF 보다-얼음’이 새로 나왔다. 특히 이번 책에는 한국문학에서 주목받는 젊은 작가와 독자를 빠르게 연결해온 문학과지성사의 세 번째 시리즈다. 동시대를 관통하는 주제로 범지구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들의 눈부신 상상력이 책에 담겼다.

이번 책의 주제는 ‘얼음’. 얼음하면 음료에 들어있는 아이스 큐브부터 비정형의 빙하까지를 아우른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 자유로이 모형을 달리하는 까닭에 문학의 다양한 소재로 확장되기도 한다.

참여 작가로는 곽재석을 비롯해 구병모, 남유하, 박문영, 연여름, 천선란 작가 등이다. 서로 다른 개성과 세계관을 지닌 이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메뉴를 골라 먹는 즐거움과 유사하다.

곽재석의 ‘얼어붙은 이야기’는 말처럼 소설이 ‘얼어붙어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미 다 썩은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는 명태나 오징어처럼 고정”된 채 진행되는 이야기에 독자는 낯선 경험을 한다. 구병모의 ‘채빙’은 얼음장 같은 ‘나’의 나날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채빙꾼과 연관된 이야기이다. 작가는 그를 일컬어 ‘얼음새’이라 명한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트립 투 이탈리아-알려진 도시와 영화

한창호 지음

괴테는 37살이던 1786년 돌연 이탈리아로 떠났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이름을 얻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바이마르 공국 재상이라는 명성과 지위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후에 ‘이탈리아 기행’을 펴냈다. 찰스 디킨스 또한 이탈리아를 여행한 후 기행문 ‘이탈리아의 초상’ (1846년)을 남겼다. 18-19세기 문호들의 ‘탈출구’였던 이탈리아의 매력은 21세기에도 여전하다.

신간 ‘트립 투 이탈리아-알려진 도시와 영화’는 한창호 영화 비평가의 ‘영화로 읽은 이탈리아 기행’이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영화학을 전공한 저자는 ‘로마 위드 러브’ (로마)와 ‘글레디에이터’ (발도르차), ‘로미오와 줄리엣’ (베로나), ‘인생은 아름다워’ (토스카나 아레초), ‘일 포스티노’ (나폴리 프코치다), ‘대부’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도시를 배경으로 삼은 영화를 통해 여러 도시를 들여다본다. 윌리엄 와일러 (로마의 휴일)와 페데리코 펠리니 (로마), 파올로 소렌티노 (그레이트 뷰티)의 눈에 비친 로마는 어떻게 다른지를 들려준다. 발터 벤야민의 글쓰기를 염두에 둔 저자는 머리글에서 “예술인들, 특히 영화감독들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겹쳐 놓았다”고 밝힌다.

저자의 여정을 따라 ‘대부’ (감독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무대인 시칠리아에 이르면 저자가 거론하는 영화들을 다시 찾아보고 싶어진다. 그리고 슬며시 괴테처럼 이탈리아 영화속 도시로 훌연히 떠나고 싶다는 마음속 충동질을 한다. 앞으로 나올 2권 ‘숨어있는(알려지지 않은) 도시들과 영화’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북피·2만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그냥 밥 먹자는 말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양희경 지음

40년째 무대와 촬영장을 오가는 배우 양희경을 이루는 것은 8할이 ‘집밥’이다. 연예인으로, 배우로 살아온 세월이 인생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그녀는 내일 아침 메뉴를 고민하며 살아간다.

“부엌에서 땀 흘리며 만드는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녀가 스스로를 일으키는 집밥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그냥 밥 먹자는 말이 아니었을지도 몰라’를 펴냈다. 주저앉고 싶어도 그럴 틈조차 없이 달려왔던 배우 양희경이 자신의 절실 인생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기울어지자 어린 언니 양희은(가수)은 밖에서 통기타 치며 돈을 벌어야 아버지 역할을, 동생 양희경은 집안 살림을 도맡아 어머니 역할을 시작해야 했다. 고 때부터의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시작된 부엌 일은 아이를 낳고 배우 일을 하고 가사도우미를 두어도 끝나지 않았다. “나는 밥을 해주는 복만 있지, 연어먹을 복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그녀는 부엌 ‘일’ 대신 부엌 ‘놀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했다. 그리고 새로운 놀이를 찾아가는 즐거움이 지금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책은 총 4부로 이뤄져 있다. 지난 70년간 저자가 맛보아온 먹거리 이야기와 온몸으로 부딪히며 사랑해온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연극 이야기 등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저자들의 생각들이 푸짐한 한상차림으로 담겨 있다.

순맛 좋기로 유명한 저자의 ‘내 밥대로’ 집밥 레시피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달·1만7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